

2018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강원도 태백시
- 장성여자중학교



2018. 7

임*혜

첫날 갔던 늘봄펜션이 그런 모양새였던 것은 앞으로 우리의 봉사활동이 뜻을 단배처럼 순항하려는 것을 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함께 뜻을 모았던 친구들과의 모든 회의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게 노력했다. 더불어 '나'의 의견이 선택되지 않더라도 절망하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지의 발전이라 여기는 것. 이것은 결국 활동의 발전이 아닌 '나'의 발전이 되었을 것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티들조차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는 모습에 배움을 나누기위해 갔던 멘토들이 오히려 배움을 나눔 받고 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짧은 기간이었지만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봉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 수 있게 되어서 마지막 학기에 얻을 수 있었던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4일 동안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맡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하는 학생들이 너무 고마웠다. 그 중 공부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나를 쳐다보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공부 의지가 넘치지만 공부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었기에 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너무 뿌듯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에게 우리 학교로 오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너무 뿌듯했다. 아쉬웠던 점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봐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것 같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오히려 나에게 배움을 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친구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학생들, 배려가 넘치는 학생들을 보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했다.

나의 중학교 3학년 시절을 떠올려보며, 장성여자중학교의 13명은 또 어떤 아이들일까? 하며 출발 전부터 정말 설렘이 가득했다. 막상 당일이 되어 아이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긴장도 되고 4일동안 잘 해낼 수 있을까?하며 걱정도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4일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난 지금은, 내 인생에서 장성여중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고민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보기엔 항상 즐겁고 웃는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지만, 인생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모로 아이들에게는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세 번째 날 밤, 13명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좋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들을 전했다.

4일간의 시간은 비록 짧지만 나에게도 너무 많은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아이들의 힘의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가르침을 준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맷다.

마지막날이 되어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나에게 행복한 시간들을 선물해준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맷고 아쉬운 나머지 눈물이 나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아이들 한 명씩 새겨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었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최고의 4일이었다.

조*진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사실 멘토링 캠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설렘도 있었지만 걱정과 긴장도 했다. 하지만 멘티들과의 첫 만남에서 너무나 활기차고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고 다짐했었다. 멘토로서의 활동이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반응도 잘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어서 더욱 좋은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경쟁심에 불타 남을 덜 생각하던 나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팀원들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해결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평소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번 멘토링 활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다음 학기에는 멘토링 활동이나 교육 봉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김*빈

작년에 멘티로 참여했던 이화 멘토링 캠프를 멘토로서 참여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좋은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멘티들을 만나서 행복했다. 첫 날, 사정이 있어 캠프 시작시간이 조금 미루어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러 만나러 갔을 때, 아이들의 눈빛과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 너무 착하고 순수한 목소리였다.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열정적인 아이들의 모습에 힘을 얻었던 것 같다. 또한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매우 많았다. 순수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기도 했었다. 또한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중학교에 멘토링 캠프를 하러 다녀오면서, 나의 주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